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주노총·금속노조는 즉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현대·기아차가 앞장서자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 직후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절차에 빠르게 착수했다. 그토록 우려했던 공격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다.

한국노총 김동만 집행부는 뻔뻔스럽게 노동자들의 생존을 팔아먹었다. 이들이 그토록 막겠다고 공언했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오죽하면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까지 시도했겠는가.

투쟁의 골든타임

박근혜는 노사정위 야합 직후 즉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개악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어제(16일)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통상임금 억제,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 법 개악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가이드라인과 입법 절차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려는 지금, 즉각 총파업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투쟁의 때를 놓치고 결국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었다는 생각과 무기력감에 이후 투쟁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목전에 온 가이드라인 추진이 '법적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11월 국회에서 승부가 나지 않겠냐고 사태를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는 당장의 공격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단협이 있으니까’ 하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미조

직·취약노조에 대한 공격에는 눈을 감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은 중국에 조직된 부문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노사정위는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고, 향후 입법화로 이어가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제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므로 지금 제동을 걸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분노

노사정위 야합과 정부의 몰아붙이는 전국 수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노사정위 야합이 있던 날, 현대·기아차 공장에서도 열 받은 조합원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나왔다.

현대·기아차지부의 정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온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다. 특히 기아차 화성공장은 90%의 압도적 지지로 정의가 가결됐다. 사측은 정부의 공세에 힘입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해 왔다.

현대·기아차지부가 나서자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사정위 야합 직후 즉각 총파업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민주노총은 오늘(17일) 단위노조 대표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의 노동자들은 즉각을 세우며 투쟁 지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는 추석 전 즉각적인 총파업을 선포



하고 결의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모임 활동가들은 대표자회의에 참가해 이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다.

민주노총의 원팔인 금속노조가 중요하다. 금속노조는 지금 신임 집행부 선출을 완료했다. 당선한 김상구 위원장은 “금속이 앞장서 노동 개악을 박살내겠다”며 “총파업을 조직하는 선거운동”을 공약한 바도 있다. 이 말이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이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현대·기아차지부가 앞장서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전체 도시를 침수시킬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다. 이 댐이 무너지면 마을 독방(사업장별 단협)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지부가 지금 즉시 총파업 선

두에서 투쟁에 나서 대공장 노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투쟁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문의 : 김우용(기아차 010-3092-9003)
정동석(현대차 010-8363-5695)



현대·기아차 임(단)투

사측이 짜놓은 판에서 나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현대차 사측은 어제(16일) 정기상여금의 603%를 기본급화해 월 5만 4천여 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함정이 있다. 사측은 기본급 확대로 좋아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면서 임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타당한 우려가 광범하게 제기되고 있다.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교박교박 지급되는 상여금을 폐지해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때문에 현장 활동가들이 상여금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이 말하는 임금 인상 효과도 사기성에 가깝다.

따라서 애초 노동조합의 요구처럼, 상여금을 폐지하지 말고 통상임금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사측은 현대차에서 통상임금 개악안을 관철해 법적으로 유리한 기아차에도 적용하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측은 “개인의 공헌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고 기본급을 기본기초급과 개별기초급 등으로 나누는 등 여러 방안을 고안해 이 참에 임금체계 개악의 기초를 만들려 한다.

사측은 심야보전수당(주간2교대 전환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 등을 삭



감하는 단협 개악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58세부터 임금을 동결하고 이후 10%씩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살인적 노동강도, 그런데 또 올려라?

무엇보다 사측은 8/8 시행 조건으로 생산물량 보전을 내세우며, 노동강도 강화와 추가 연장근무 보장을 압박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대·기아차지부 집행부는 8/8 시행조건에 관해 UPH-UP과 휴일 축소, 단협 개악 등을 담은 양보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아차에선 조합원들의 반발로 이미 한차례 집행부의 양보안이 폐기됐

는데도, 김종석 집행부는 또다시 대의원대회에서 폐기된 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내동댕이친 것이다. 현대차 집행부도 공장 간 형평성을 전제로 UPH-UP에 동의하겠다고 있다.

이는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난달에 현대차 아산공장의 대의원·현장조직위원들은 울산 본관 앞에서 항의 집회와 집행부 면담을 했다. 아산공장은 이미 66UPH로 “56초에 1대씩 뽑아내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더 높이려는 것은 죽으란 얘기다.

사측의 개악안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지부 집행부가 양보안을 기웃거리며 사측이 내놓은 개악안을 중심으로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 조합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싸워 보지도 못한 채, 벌써부터 ‘잠정합의’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불길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을 포함해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임금 조건 등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현대·기아차 집행부는 혹여 부적절한 타협으로 총파업을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은 지금 열망이 식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추석이 코앞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높은 지지로 쟁의를 가결한 것이 이를 보여 준다. 현대차 조합원들은 장대비 속에서도 5천~6천여 명이 쟁대위 출범식에 참가하기도 했다.

집행부는 사측의 개악안을 분명히 거부하고, 임단투 승리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해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기아차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철폐 대책위가 구성되다

2011년 이후 입사한 기아차지부의 신입 조합원들이 임금 차별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1200여 명에 이르는 신입 사원들은 호봉 차별, 주간2교대 전환수당인 심야보전 수당 차별, 사내하청 신규채용으로 인한 근속 차별 등을 겪고 있다. 이들은 차별에 맞서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철폐 대책위’ 구성해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그리고 올바르게도 똑같이 임금 차별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에도

반대해 이중임금제와 함께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이들은 2주 전에 대책위를 결성해, 현장 조합원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참여와 지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다. 신입 조합원 30여 명이 화성 공장 곳곳을 누비며 유인물을 반포했다. 대책위 카톡방에는 벌써 1백여 명이 넘는 이들이 가입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기아차 소하리·광주 공장과 현대차의 신입사원들과도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자.

금호타이어, 조선업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보수언론은 연일 조선업종과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파업을 “귀족노조”, “이기주의”로 몰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 상황에서 이 투쟁이 눈엣가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반대 등을 내걸고 투쟁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조선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임금 동결 압박에 맞서고 있다. 빈번한 산재사망사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근절 요구는 매우 절실한 것이기도 하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지난 5년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이 40퍼센트나 깎였다.

오늘(17일) 조선업 노동자들이 2차 공동 파업을 하고 울산 태화강에 모여 집회를 한다. 노동자들은 조선업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함께 싸우자며 일어섰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무려 한 달째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도 벌써 열흘째다. 공장 점거로 직장폐쇄에 맞선다면 파업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